

“장애·비장애, 미디어 격차 해소해야”

- ‘2026 장애인 미디어 축제’ 개최...영화 상영·발달장애작가 작품 전시 등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미디어를 함께 즐기고 다양한 체험·전시 등을 관람하며 소통하는 ‘장애인 미디어 축제’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4일부터 양일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경계없는 미디어, 하나된 우리’를 주제로 ‘2026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미디어의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이번 축제에는 부산장애인총연합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지역 방송사 등이 참석했다.

발달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뮤지컬 극단 ‘하이파이브 친구들’의 특별 공연으로 문을 연 이번 행사는 장애인에게 차별없는 환경(배리어프리)에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상영하고 발달장애작가 등의 미술 작품 전시 등이 진행된다.

행사장은 ▲‘어둠속의 영화관’, ‘소리로 읽는 미술’ 등 장애 공감 체험 및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미마당’ ▲지역 대학생이 직접 제작한 장애 주제 콘텐츠 및 장애인 무장벽 상영관 ‘장미극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을 실시간으로 소개·판매하는 ‘장미라이브’ 등으로 구성됐다.

방미통위 박동주 사무처장은 개막사를 통해 “이번 행사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방미통위는 미디어 기본사회에 입각해 누구에게나 장벽 없는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2026 장애인 미디어 축제’ 안내 전단

담당 부서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동석 (02-2110-1450)
		담당자	사무관	송호섭 (02-2110-1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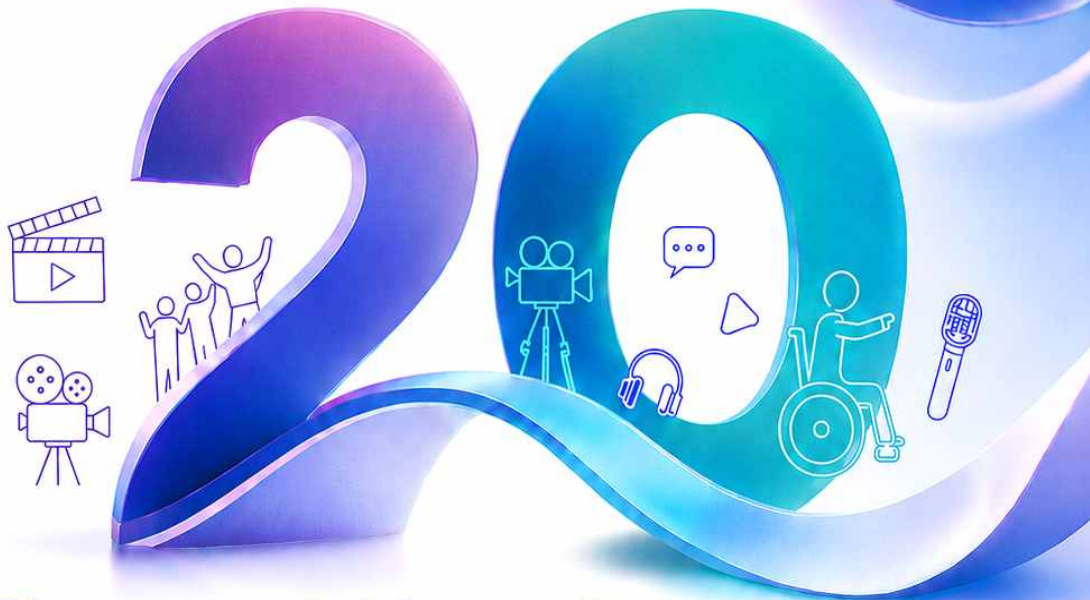
제20회

장애인 미디어 축제

Limitless20:

경계없는 미디어, 하나된 우리

LIMITLESS



일 시 2026. 6. 24.(수) ~ 6. 25.(목) 개막식 6. 24. (수) 14시

장 소 시청자미디어재단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주요프로그램



장미극장

개막작 <왕과 사는 남자>, 장애 주제 콘텐츠 상영



장미마당

어둠속의 영화관, 발달장애 작가 미술작품 전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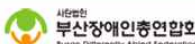
장미라이브

장애인표준사업장 제품을 실시간으로 만나요

주최



주관



협력

